

3/16(수) 요한계시록 묵상

요한계시록 12:1-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한 스가랴 13장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 사이 중간기를 구약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절, 7-12절, 13-17절.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

먼저 1절을 보시면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1절을 자세히 보면 몇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6절을 보면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12명의 형제들 중에 면류관을 썼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12지파를 가진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5절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5절의 말씀은 시편 2: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시 2: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즉,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고 만국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3절을 보면 또다른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 용에 대해서는 본문 9절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 사이에 서로 간의 전쟁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 사이의 전쟁

여자의 아들이 태어나자 용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4절하,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이 유다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의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라 명하게 되었습니다(마 2: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뿐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도 여러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 모독 죄로 인해 십자가 사형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문 5절 후반절 말씀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5절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은 것은 누구입니까? 여자와 용입니다. 이 둘 사이에 잡고 쫓기는 관계가 펼쳐지게 됩니다(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이백육십 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병행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계 11:2-4,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가리키는데 이는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이백육십 일’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종말의 시대 즉, 교회가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성경은 ‘천이백육십 일’로 상징합니다. 이 때 본문 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는 것은 환란의 시기에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성경해석의 원칙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이처럼 서로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책이 아니라 이처럼 서로가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의 가르침은 이러한 성경 중심의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잘못된 이론과 사상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묵상한 스가랴 13장의 말씀과 오늘 묵상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내용적으로도 서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 성경 모두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온갖 전쟁의 소식들과 여러가지 환난과 고난, 전세계적인 질병과 지진,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이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때에도 롯의 사위들은 그 날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또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쉘튼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몽골 김봉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